

현장과 시각

광주·전남·북 머리 맞대라



김주정
정치부 부장

이명박 정부가 전국을 행정구역에 상관없이 '5+2경제권'으로 나눠 개발하기로 함에 따라 광주와 전남, 전북이 '서남광역경제권'으로 묶이게 됐다. 정부는 호남을 광주를 중심으로 전남 동부~전남 서부~전북 새만금 연계하는 대삼각축으로 개발해 '환황해시대의 신무역증상지'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서남권이 걸어야 할 길은 험난하다. 새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전 정부의 정책을 대신해 '경제권별 경쟁 논리'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어 돈과 인력이 달리는 서남권에서는 '빈익빈'의 골레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남권은 가장 면적(2만629km)이 넓은데도, 인구는 충청권보다 고작 23만명 많은 4위(502만명)에 그치고 있다. 지역내 총생산(83조원), 제조업 고용(20만2천357명), 내국세(3조4천848억 8천900만원), 지방세(2조5천301억400만원) 모두 5대 광역경제권 가운데 꼴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등 대형 국책 프로젝트를 권역별 공모경쟁에 부진한다. 그 결과는 뻔하다. 광주·전남은 이미 지난 정권의 자기부상열차 시범도시, 로보랜드 등으로 들어서 쓰라린 패배를 하지 않았는가.

더욱이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충청권 등은 짧게는 1년, 길게는 4년 전부터 광역경제개발을 추진해왔다. 동남권의 경우 이미 조선·중화학·기계 등을 위주로 실물 경제는 한 몸이 된지 오래고, 지난 2004년부터 '부·울·경 경제권 구축사업'을 진행해왔다.

대경권도 2년전부터 시·도 지사가 직접 나서 경제통합을 추진해 지난 연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이끌어냈고, 대구~철곡~구미를 잇는 모바일 산업벨트 등 30여개 경제통합 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 대구·경북 모두 경제통합추진조례까지 만들었다.

충청권은 지난 해부터 민간이 참가하는 '충청권경제협의체'를 구성했고, 이미 바이오산업벨트 3개 시도가 함께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은 지난해 국제항공노선 개설과 컨벤션센터 설립을 놓고 힘겨부기를 했다. 광주와 전남은 그래도 혁신도시를 공동 유치했다. 전북도는 지자체나 민간 모두 소원한 관계다. 한때 유니버시티마케팅 개최, 로스쿨 유치 때문에 감정의 골도 있었다.

요즘도 자치단체는 물론 연구기관 등 학계까지 자기 지역이 유리한 '나 홀로' 개발 전략을 짜고 있을 뿐 아직 머리조차 맞대지 않고 있다.

광주는 중심도시로서 느긋하고, 전남은 전 정권에서 계획된 것만이라도 잘하면 된다는 태도다. 전북은 광주·전남과 붙으면 손해라는 표정이 역력하다.

2008년 3월 31일까지

Table with 2 columns: 과정 (과정) and Office automation (사무자동화). Rows include PC 운영체제 및 장비, 네트워크, 웹 개발, 데이터베이스 등.

현대직업전문학교
광주 동부경찰서 앞 ☎ 062) 224-4560

남측 인원 개성공단 거주등록 수수료

北, 100달러씩 요구

통일부 "합리적 조정 협상중"

북한이 개성공단에 상주하는 남측 인원의 거주등록 수수료로 1인당 100달러를 최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지난해 초 개성공단 상주인력에 대해 체류 또는 거주 등록과 함께 등록증 발급 수수료를 요구해와 1년째 협상이 진행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2일 "지난 1월말 북측에서 협상중이던 개성공단 체류·거주 수수료액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불이행시 2월 11일부터 출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통보했다"면서 "그러나 현재 공단 출입은 자유롭게 이뤄진다"고 말했다.

북측은 '90일까지 단기체류 등록수수료'로 35달러, '1년 기준 거주 등록수수료'로 100달러 등을 요구해왔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파키스탄 부족장 회의 자폭테러 30여명 숨져

파키스탄 북서변경주(주) 다라아담켈의 지역 부족장 회의장에서 2일 자살폭탄테러가 발생, 3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다.

아타르 압바스 파키스탄 육군 공보관(소장)은 이날 오전 부족장 회의(지프)에서 자폭테러가 발생했다고 확인했다.

현지 언론인 돈뉴스TV와 익스프레스 뉴스는 테러로 30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부상했다고 전했고, 익명을 요구한 보안군 관계자는 "20명 이상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의사들은 자폭 테러로 40명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NFWP의 5개 부족 대표들은 탈레반과 알카에다의 주요 거점인 이 지역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문제를 놓고 주도(州都) 페샤와르 남쪽 약 40km 지점에 위치한 다라아담켈에서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회의장에 있던 알람 칸은 한 젊은 남자가 원로들이 앉아 있던 곳으로 걸어가 난데없이 메고 있던 폭탄을 터뜨렸다고 설명했다.

최근 파키스탄에서는 2건의 자살폭탄 테러가 이어졌다. 지난달 29일 스왓밸리의 망그라 마을에서 열린 경찰관 장례식장에서 자살 폭탄테러가 발생, 38명 가량이 숨지고 62명이 부상했다.

김정일 중대사관 방문 양국관계 복원 모색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일 북한 주재 류샤오밍 중국 대사의 요청에 따라 중국 대사관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류 대사는 대사관을 방문한 김 위원장에게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인사를 전달하고 자신이 마련한 선물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시의를 표시하고 후 주석에게 인사를 전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북한의 핵포로 그림 신고지연으로 6자회담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이번 방문 행보는 무엇보다 2006년 이후 소원해진 북중관계를 복원하려는 양국 지도부의 이해관계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정치 자문기관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政協)가 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1기 제1차 회의를 개막한다. 자칭린 정협 주석은 3일 인민대회당에서 2천237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거행하고 13일 주석단과 비서장을 선출한 뒤 14일 폐막한다. 정협은 개막일을 하루 앞둔 2일 인민대회당에서 예비회의를 열고 주석단과 비서장 명단, 상무위원회 통과보고 등 모두 3개항의 의사일정을 통과시켰다.

이번 정협에서는 중국 개혁개방의 아버지인 덩샤오핑의 아들 덩펑방(鄧峰方,64) 장에인연합회 주석이 정협 부주석으로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중 정치협상회의 개막 주석단·비서장 선출



1일 이스라엘 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폐허가 된 가자지구 북동쪽 자발리아 난민촌에서, 살아남은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생존자를 구해내기 위해 건물의 잔해를 살피고 있다.

이스라엘 가자지구 맹공 60여명 사망

자발리아 난민촌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소탕 작전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1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스라엘 군은 이날 새벽부터 가자지구 북동쪽에 위치한 자발리아 난민촌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을 소탕하는 작전을 벌였다고 알-자지라 방송이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적어도 60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하고, 이스라엘 병사 2명이 전사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가자지구에서 홀로코스트를 능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의 로켓공격을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가자지구에서 진행하는 작전을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대량학살로 규정했다. 시리아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는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인 칼리드 마샤알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진짜 홀로코스트"라고 비난했다. 그는 "제 정신을 갖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이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침공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가자 사태의 본질은 팔레스타인의 로켓 공격에 이스라엘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침공에 팔레스타인이 로켓으

오바마 굳히기나 힐러리 뒤집기나 미니 슈퍼화요일 D-2

지지율 오차범위내 박빙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과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1일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의 마지막 최대승부처로 떠오른 미니 슈퍼화요일로 불리는 텍사스와 오하이오에서 가장 잘 대처할 경력을 갖춘 후보를 고를지 여부를 두고 2일 인민대회당에서 예비회의를 열고 주석단과 비서장 명단, 상무위원회 통과보고 등 모두 3개항의 의사일정을 통과시켰다.

힐러리, 오바마 등에 반쪽 서에 반쪽 힐러리와 오바마는 이번 경선에 걸린 대의원을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선거지역을 통해 반쪽 서에 반쪽

하는 식으로 눈코 뜰 새가 없을 정도로 바쁘게 누비고 있다. 힐러리는 이날 오바마의 돌풍을 잠재우고 선거전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인구가 많은 지역을 돌면서 자신이 국가비상 상황에 가장 잘 대처할 경력을 갖춘 후보임을 강조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오바마도 힐러리의 우세지역인 오하이오 주도인 클리블랜드 근교인 파르마로 떠나기 앞서 로드 아일랜드에 잠시 들러 이번 투표가 끝난 뒤 텍사스에서 최초의 흑인대통령 후보를 지명하는 축회 기념식을 가질 수 있기를 고대한다

고 말했다. <오바마, 힐러리 박빙>이번 경선에서 전략지역에 해당하는 텍사스와 오하이오에서 오바마와 힐러리의 지지율은 그야말로 오차범위내의 박빙이다.

로이터와 씨스앤-조브 지지를 여론 조사가 따르면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텍사스에서 오바마 45%로 힐러리를 2%포인트 차로 앞섰다. 오하이오에서는 이날 두 후보가 45%로 동률을 이뤘다. 하지만, 폴스뉴스와 오픈인 다이내믹 조사에서는 힐러리가 오하이오에서 46%대 38%로 크게 앞섰다.

Advertisement for Seongjeong Apartment featuring a large photograph of the building and text describing its amenities, location, and contact information (368-8889).

Advertisement for a public servant exam (공무원) with details on exam dates (7·9급), subjects, and contact information (www.mdgosi.co.kr).

Advertisement for Hanbit Public Servant Exam (한빛공무원학원) for the 9th level exam, including dat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Hyeonjae Career Training Center (현대직업전문학교) for a 2008 training course, listing subjects and contact info.